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 —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Problem, Coping Strategies, Depression and the Social Support
Need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of Unemployed Husband's Wives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 수 최 규 련

Dep. of Home Management, Suwon Univ.
Associate Professor: Choi, Kyu Reon

〈목 차〉

I. 서 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of unemployed husband's wives and to analysis the social support(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needs for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139 unemployed husband's wives living in Seoul city and Kyunggi-do province.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for data gather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Wives perceived the most negative change of unemployed husband. Wives' depression was influenced by self-esteem, evaluation of husband's coping behavior, weak health, passive coping strategies, and negative change of husband and marital relation.

2) Wives needed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the most in the area stress & mental health problem,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commun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he relation with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unemployed husband's wives.

* 본 논문은 1998년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 중의 일부임

I. 서론

최근 외환위기로 시작된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저성장, 대량실업 구조에 있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계부양자의 실업은 실직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족소득의 중단을 의미하며 가족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그 결과 가구주의 실업으로 물질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부부불화, 가정폭력, 주부의 가출, 이혼과 가족해체, 자녀유기현상과 요보호아동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배주의, 과도한 두려움, 불안, 신경쇠약, 자살시도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보험금을 노린 자해 및 살인 등의 범죄가 가족안에서 발생하는 등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국민일보, 1998, 8,29, 9,26 ; 중앙일보, 1998,4,27, 1998 9,24 ; 한국일보, 1998, 4,23, 1999, 7,5).

이와 같이 실업과 경제적 위기는 당사자와 가족 전체에 매우 큰 스트레스와 위기감을 야기시키고 가족해체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실업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나 가족의 태도, 자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정은 실업충격 완충장치가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망 장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실업대책이나 접근들은 실직 당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취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이 주축을 이루고 최근에 여성계의 노력으로 여성실직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실직자 가정의 위기극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내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실직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막연히 상담인력을 늘이는데 그칠 뿐 실태파악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에 대한 가족 특히 아내의 대처능력개발과 지지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실직자 아내를 대상으로 문제와 대처방법,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 지원요구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가족의 위기극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우울감,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증적 결과를 통하여 실직자 가족의 실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 아내의 대처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대책과 프로그램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실업이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의에서 매우 부족하며 이론적 연구이거나 부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경제문제가 심각해지면 사이가 좋아지는 부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불화와 갈등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리고 실업전에 부부간의 결속과 적응성이 강했던 가족은 실업의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취약한 결혼관계였던 부부는 위기 상황에서 더 쉽게 해체되는 경향이다. 또한 경제력 상실은 가족이 속한 계층이나 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원,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성, 대처전략 등에 따라 가족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다(Elder et al, 1992 ; Liker & Elder, 1983 ; Moen et al, 1983 ; Voydanoff, 1990).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탐색이 대부분이며(권중돈, 1995 ; 김승권, 1998 ; 김유순·이영분, 1998 ; 안병철, 1998 ; 이동원·함인희, 1993 ; 정경배, 1998 ; 조성희, 1998 ; 채규만, 1998 ; 최규연, 1998), 실증적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최근 실증적 연구가 두 편 발표된 바있다. 하나는 도시 실직자를 대상으로 경제, 주거, 가족관계의 변화와 문제, 대처방법, 지원요구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정현숙 외, 1998). 이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의 4,50대 남성

실직자로서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그에 따라 문제의 심각도가 크고 생존을 위한 경제적 조건과 주거여건이 열악하며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족의 기능수행이 낮은 상태에 있다. 이들은 지원요구로서 전화상담을 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치중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서 실직자 가족에 관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실직자의 아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하나의 연구는 실직전 직종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인 실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직상황 인지와 적응에 대한 심층면접 접근을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의 경제력, 교육수준, 의사소통 능력, 긍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 가족의 결속력, 평등한 부부권력 등이 위기에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그러나 이 연구는 중산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심층면접에 의한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양적 통계에 의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원요구도를 파악하지 않아서 연구의 일반화와 지원대책 제시가 불분명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대책이나 연구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 가정의 아내를 대상으로 문제, 대처방법,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요구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실직자 가정의 가족원의 변화와 문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배경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① 아내가 지각한 가족과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남편,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 친척관계)

② 주관적인 문제인지(경제문제, 경제적 문제, 6개월후 예상되는 문제, 가정폭력)

2) 실직자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대처방법은 어떠한가? 그리고 배경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① 남편의 대처행동

②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평가

③ 아내의 대처방법

3) 아내의 우울감은 어떠한가? 그리고 배경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4) 아내의 우울감과 관련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울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5) 아내의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요구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배경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예비조사를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실직자와 그 아내들을 주변탐색과 서울인력은행의 협조를 통하여 면접조사를 하였고,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실직자와 그 아내를 면접조사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실직한 남편의 아내로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본 연구가 실직자 아내의 위기대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태파악과 기초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프로그램의 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계층은 본 조사에서도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극빈계층의 문제와 지원대책에 관하여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조사도구

(1)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아내가 지각한 남편,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 친척관계 등의 부정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남편의 부정적 변화는 '신체적 건강악화, 짜증 증가, 불면, 식욕저하, 불안, 긴장, 우울, 성욕의 감소, 가사활동증가 없음, 자녀지도 증가없음' 등의 10문항으로 되어있다.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부부 대화의 감소, 부부싸움의 증가, 별거나 이혼고려, 남

편의 아내의심' 등 4문항이다. 자녀의 부정적 변화는 '자녀의 불만증가, 부모-자녀간 갈등증가, 자녀의 문제행동'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전체의 부정적 변화는 '가족의 대화감소, 함께 보내는 시간감소, 거리감, 가족화목의 감소, 가족원의 신체건강 악화' 등 5문항이다. 친척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왕래의 감소, 친척과의 갈등, 시부모 부양부담, 시부모와의 갈등' 등 4문항으로 되어있다.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부정적 변화를 아내가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 값이 남편의 경우 .83, 부부관계의 경우 .87, 자녀의 경우 .92, 가족전체의 경우 .92, 친척관계의 경우 .88이다.

(2) 아내의 대처방법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과 전반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참고문헌과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사용유무를 질문하였다. 대처방법 문항으로는 '생활비긴축, 저축줄임, 적금이나 보험해약, 퇴직금사용, 부인의 취업, 부채이용, 자동차나 귀금속처분, 집규모 축소' 등이 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McCubbin 등 (1982), Folkman과 Lazarus(1980)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성적 계획과 해결 시도, 긍정적 사고, 외부도움 요청'의 3문항으로 된 적극적 대처방식과, '운명이나 팔자소관, 참음, 화내기, 술·담배사용, 신앙' 등 5문항으로 된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되는 전체 8문항으로 되어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들의 대처방식 사용이 많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64, 소극적 대처방식이 .79이다.

(3) 남편의 대처행동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놀고지냄, 취미생활, 가사돌보기, 구직활동, 아르바이트, 공공근로사업 참여, 직업훈련 참가, 창업정보 수집, 실직자 모임참여, 자원봉사활동, 술·담배 사용 증가, 종교생활'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렇다'와 '아니

다'의 응답방식으로 되어있다. 자료처리과정에서 '놀고지냄', '술·담배 사용증가' 등의 부정적인 대처방법은 '아니다'에 응답한 것을 1점으로 점수화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그렇다'에 응답한 것을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대처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우울감

우울감은 Ul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에 연구자가 몇 문항을 추가하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는 .92이다.

(5) 심리문제 해결지원 요구도

문헌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11가지 문제영역(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부부의 습관문제, 부부간의 갈등문제, 부부간의 대화문제, 가정폭력, 성생활문제, 별거·이혼문제, 자녀문제, 자녀와의 대화문제, 친척관계문제, 가족원의 자살이나 가출문제)을 제시하고 사회나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문제별 사회적 지원형태 4가지(면접상담, 전화상담, 교육, 지원을 원하지 않음) 중 한 가지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심리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적 지원요구도를 분석하여 실직자 아내의 위기대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심리문제별 지원요구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6) 기타 척도

배경변인으로서 인적 사항과 남편의 실직 관련사항이 있고, 주관적인 문제인지를 묻는 척도로서 '현재의 경제적 및 경제외적 문제, 6개월 후 예상되는 문제, 가정폭력 빈도와 정도'에 관한 문항들이 있다. 그리고 아내의 자존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Rosenberg (1979)의 Self-esteem Inventory를 3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신뢰도 값은 Cronbach' α .83이다.

3) 자료수집

예비조사를 위해서 1998년 7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직자 남편 2명, 실직자의 아내 4명, 실직자와 그 아내 2쌍을 개별면접하였고, 실직자대책협의회 관계자의 자문을 받았다.

본 조사에서는 기관을 통한 방법과 주변 탐색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기관을 통한 방법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개의 실직자 재취업훈련센터(K인력개발원, D경영개발원)와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실직자 재취업훈련센터(M환경연구원, D전산교육센터)의 협조를 얻어 교육 중인 실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아내들이 전달받아 기입한 후 다시 실직자를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병행하였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을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원시에 거주하는 실직자 아내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표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를 아내용이라고 써어진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아내에게 남편과 상의하지 말고 직접 기입한 후 반드시 밀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1998년 8월 18일부터 10월 28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240부를 배부하여 161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기제가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13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처리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각 변인의 일반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test, t-test, F-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상호관련 정도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고,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C/WIN 7.5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들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 40대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6세이었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0.5세이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12.5년이고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었다. 아내는 고졸이 가장 많고 남편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남편의 실직전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고 다음 전문직·관리직, 전문기술직의 순으로 많았다.

남편의 평균 실직기간은 8.1개월이고 실직 전 평균 재직기간은 12.3년이었으며 실직전 평균 월임금은 2,201,200원이었다. 남편의 실직 이유는 70.5%가 구조조정, 18.0%가 직장의 휴폐업, 5.1%가 월급체납과 부당노동, 근로조건 악화 때문이었다. 퇴직금 평균액수는 51,120,000원이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24.5%이었다. 아내들의 현재 직업은 주부가 대부분이고 8.6%가 IMF관리체제 이후 근로조건 악화, 월급체납과 부당노동, 직장휴폐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실직한 상태이었다.

아내들이 지각하는 경제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생계비 부족 (45.3%)이고 다음 자녀교육비 문제 (28.1%), 차입금과 이자상환(18.0%) 이었고, 이외에 주거비 문제, 세금 및 공과금체납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들의 자존감의 평균값은 8.71 (표준편차 2.49)로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2. 가족의 부정적 변화와 문제

1) 부정적 변화

남편 실직 후 아내가 지각하는 가족의 부정적 변화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들은 실직한 남편에게서 부정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고 다음 친척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를 크게 지각하나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는 가장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정현숙 외, 1998)와 유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39*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아내 연령	25~29세	17	(12.2)	남편 연령	30~34세	33	(23.8)
	30~34세	38	(23.7)		35~39세	30	(21.6)
	35~39세	34	(28.1)		40~44세	41	(29.5)
	40~44세	29	(20.9)		45~49세	17	(12.2)
	45~49세	12	(8.6)		50~54세	9	(6.5)
	50~55세	9	(6.5)		55~59세	9	(6.5)
아내 학력	중 졸	5	(3.6)	남편 학력	고 졸	41	(29.5)
	고 졸	75	(54.0)		대 졸	85	(61.1)
	대 졸	59	(42.5)		대학원졸	13	(9.4)
자녀수	1명	27	(26.6)	주택 소유	자 택	78	(56.1)
	2명	86	(61.9)		전 세	57	(41.0)
	3명	16	(11.5)		월 세	4	(2.9)
결혼 기간	5년이하	24	(17.3)	남편 실직 전 직업	생산직·근로직	12	(8.6)
	6~10년	37	(26.6)		판매서비스직	2	(1.4)
	11~15년	33	(23.8)		자영업	8	(5.8)
	16~20년	24	(17.3)		사무직	55	(39.6)
	21~25년	12	(8.6)		전문기술직	18	(12.9)
26년 이상	9	(6.5)	전문직·관리직	44	(31.6)		
아내 종교	기독교	39	(28.1)	남편 종교	기독교	37	(26.6)
	천주교	20	(14.4)		천주교	13	(9.4)
	불 교	21	(15.1)		불 교	17	(12.2)
	기 타	1	(.7)		기 타	1	(.7)
	없 음	58	(41.7)		없 음	71	(51.1)
실직전 월평균 임금	100만원이하	7	(5.0)	퇴직금 수령액	없 음	34	(24.5)
	110만~150만원	43	(30.9)		1000만원이하	15	(10.8)
	160만~200만원	32	(23.0)		1100만~2000만원	22	(15.8)
	210만~250만원	16	(11.5)		2100만~3000만원	13	(9.4)
	260만~300만원	29	(20.9)		3100만~4000만원	9	(6.5)
	310만원이상	12	(8.6)		4000만~5000만원	12	(8.6)
					5100만~1억원	25	(18.0)
			1억1000만원이상	9	(6.5)		
실직 기간	6개월이하	60	(43.2)	부인 직업	주 부	113	(81.3)
	7~12개월	62	(44.6)		생산직·근로직	5	(3.6)
	13~18개월	10	(7.2)		판매서비스직	10	(7.2)
	19개월이상	7	(5.0)		자영업	1	(.7)
			사무직	1	(.7)		
			전문기술직	7	(5.0)		
			전문직·관리직	2	(1.4)		

a : 문항별 응답누락으로 사례수 변동이 있음

배경변인(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연령, 종교, 아내의 직업, 남편의 실직전 직업, 실직기간, 퇴직금액 수, 주택소유 여부)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남편의 부정적 변화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t=-2.12, p<.05$)을 제외하고는 배경변인에 따라 여러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정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로써 실직자 아내들은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 자기 집에 사는 경우보다 남편의 부정적 변화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를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2〉 아내가 지각한 가족의 부정적 변화

구 분	남편의 부정적 변화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	자녀의 부정적 변화	가족전체의 부정적 변화	친척관계의 부정적 변화
평 균	28.53	8.61	5.87	10.73	9.05
표준편차	6.05	3.38	2.52	4.22	3.54
5점단위 평균	2.85	2.15	1.95	2.15	2.26

2) 주관적인 문제인지

아내가 지각하는 문제를 현재의 경제적 문제와 경제 외적문제, 6개월 후 예상되는 문제, 가정폭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 외적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문제(40.3%)이고 다음 스트레스와 갈등해결(19.4%), 신체건강문제(16.5%), 부부간의 성격차와 대화문제(8.6%)의 순이었다. 다음 이런 상태로 6개월을 지내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복수응답하도록 질문한 결과 정신건강의 악화(80.6%)를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다음 경제적 파산(44.6%), 신체건강의 악화(23.0%), 자녀교육문제의 심각(19.4%), 별거와 이혼(12.2%)등을 우려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편의 실직 전에 18.7%의 가정에서 폭력이 있었는데 비해 실직 후에는 29.5%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여, 실직 후 폭력이 10.8%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폭력의 대부분(88%)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었다. 또한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 실직 전에는 전체 폭력 중 37.5%이었는데 비해 실직 후에는 41.5%로 증가하였다. 폭력빈도도 증가하여 실직 전에는 1달에 1-2회이상과 1주일에 1-2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26.9%를 차지하였는데 비해 실직 후에는 63.4%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남편의 실직 후에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빈도와 정도도 더 심해졌다 할 수 있다.

3. 남편과 아내의 대처방법

현재 문제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직자 남편의 경우 대처행동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직업훈련 참가 77.7%이고, 다음 일자리 알아보기(76.3%), 취미생활(41%), 술담배 사용증가(38.1%), 가사활동(33.8%), 놀고지냄(24.5%), 실직자모임 참가(19.4%), 공공근로사업 참가(10.8%), 자원봉사활동(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아내의 평가는 불만이 40.3%이며, 그저그렇다(34.5%), 만족(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남편과 자녀의 용돈과 생활비 긴축이 89.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 저축을 줄이거나(52.5%)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51.1%)하는 방법, 퇴직금사용(41%)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으며, 아내의 취업이나 부업(11.5%), 부채이용(10.8%), 자동차나 귀속속 처분(7.9%), 집규모 축소(7.9%) 방법 등도 사용하였다.

아내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서는 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73.4%), 이성적 계획과 해결시도(71.9%), 긍정적 사고(59%), 화내기(59%), 외부도움 요청(46%), 종교에 의지(43.2%),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간주(39.6%), 술이나 담배사용(16.5%)의 순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면 적극적 대처는 평균 9.25(표준편차 1.77)이고 소극적 대처는 11.69(표준편차 2.59)이다. 이 값을 5점 단위로 환산하면 적극적 대처는 3.08, 소극적 대처는 2.34로서 아내들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배경변인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편의 대처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대졸이상의 남편이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

($t=-3.16$ $p<.001$).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대처행동과 이에 대한 아내의 만족, 아내의 대처방법 등에서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의 실직자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추정된다.

4. 아내의 우울감

1) 일반적 경향 및 차이검증 결과

우울감의 일반적 경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33.05 (표준편차 8.92)로 중간이하 수준이었다. 우울감의 각 문항별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아내들은 불안·초조감(77.7%)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신경질과 화냄(75.4%), 건강악화 염려(69.1%), 긴장감(69.1%), 의욕저하 (69.1%), 자책감 (67.6%), 불면(61.9%), 성적 관심감소(61.2%), 실패감 (60.4%), 식욕저하(57.6%), 비관적 생각(54.5%), 가솔충동(37.4%)의 순으로 경험하였다.

이 변인들 상호간에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건강, 퇴직금, 소극적 대처, 자존감,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등의 변인들도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아내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 아내가 지각한 자녀, 가족 전체, 친척관계 각각의 부정적 변화들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는 변인들을 선정한 결과 건강, 퇴직금, 아내의 소극적 대처,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남편의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이었다. 이중 남편의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변인이 아내의 우울감과 각각 매우 큰 상관을 보이고, 나머지 배경변인이나 대처변인들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므로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

〈표 3〉 아내의 우울감의 차이분석

변 인 (빈도)		우 울 감	
		평균(표준편차)	t - value
자택	자가 (78)	31.59 (9.23)	t = -2.21*
소유	전·월세 (61)	34.92 (8.21)	

* P <.05

아내의 우울감에 대하여 배경변인(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연령, 종교, 아내의 직업, 남편의 실직 전 직업, 실직기간, 퇴직금, 자택소유 여부 등) 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표 3〉에서 보는대로 자기집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아내의 우울감과 관련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보는 바와 같다.

아내의 우울감이 남편,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 친척관계의 부정적 변화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또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로 건강, 퇴직금, 소극적 대처,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자존감을 포함하여 아내의 우울감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2 단계로 이들 변인에 남편의 부정적 변화,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 등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1단계 분석에서는 자존감($\beta = -.277$), 남편의 시간관리와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beta = -.232$), 건강($\beta = -.211$), 소극적 대처($\beta = .208$)가 아내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퇴직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내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시

〈표 4〉 아내의 우울감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남편연령	1.00										
2. 건강	-.107	1.00									
3. 퇴직금	.517***	-.048	1.00								
4. 남편변화	.039	.201*	-.179	1.00							
5. 부부관계변화	-.007	-.209*	-.138	.647***	1.00						
6. 가족변화	.065	-.158	-.115	.688***	.836***	1.00					
7. 자녀변화	.114	-.154	-.085	.549***	.744***	.787***	1.00				
8. 친척관계변화	-.066	-.015	-.114	.591***	.732***	.815***	.653***	1.00			
9. 소극적 대처	.218***	-.049	.109	.216*	.327***	.273*	.219*	.236*	1.00		
10. 만족도	.040	.004	.113	.352***	.372***	.355***	.338***	-.114	-.238***	1.00	
11. 자존감	-.030	.041	.198*	.325***	.252***	.266***	.183*	-.129	-.112	.131	1.00
12. 우울감	.006	-.231**	-.211*	.707***	.680***	.653***	.535***	.610***	.273***	-.373***	-.276***

* P <.05 ** P<.01 *** P<.001 a :부정적 변화 b :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표 5〉 아내의 우울감에 대한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 인	1 단계			2 단계		
	B	β	t-value	B	β	t-value
자존감	-1.018	-.277	-3.115**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만족	-2.090	-.232	-2.568*			
건강	-1.999	-.211	-2.381*			
소극적 대처	.719	.208	2.323*			
남편의 부정적 변화				.680	.448	5.824***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				1.079	.396	5.157***
상수			47.254			4.449
R ²			.212			.577

B :비표준화회귀계수 β :표준화회귀계수 * P <.05 ** P<.01 *** P<.001

간관리와 대처행동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며 이 변인들에 의해 우울감 총변량의 21.2%가 설명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부정적

변화($\beta = .448$),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beta = .396$)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 변인들에 의해 우울감 총변량의 57.7%가 설명되었다. 한편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자존감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은 추가되는 변인들에 의해 영향력이 상쇄되어 영향력

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로써 아내의 우울감은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부정적 변화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변화인지 요인을 제외하면 자존감,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한 아내의 만족, 건강수준, 소극적 대처행동 등의 변인들이 역시 아내의 우울감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자 아내들의 우울감 완화를 위해서는 남편실직후 남편 및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아내의 낮은 지각, 아내의 스트레스 관리와 분노조절, 자존감 증대, 건강 증진, 아내의 소극적 대처행동의 감소 및 적극적 대처행동의 증가 등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요구도

1) 일반적 경향

실직자 가정의 아내들이 심리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요구하는 상담교육 지원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면접상담 요구도가 높은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문제(30.2%), 부부의 습관문제(25.9%), 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 다음으로 많이 요구하는 지원형태는 교육, 전화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 요구도가 높은 문제는 부모친척과의 갈등문제(34.5%), 성문제(32.4%), 별거나 이혼, 가정폭력, 자살과 가출예방(26.6%) 등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 다음으로 많이 요구하는 지원형태는 면접상담,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가 높은 문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46.0%), 부부간의 대화개선(44.6%), 자녀와의 대화개선(43.2%), 자녀문제(36%) 등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 다음으로 많이 요구하는 지원형태는 면접상담, 전화상담의 순이었다.

이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실직자의 아내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이 외부의 지원을 원하고, 또 부부간의 갈등문제 해결과 부부간의 대화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별 지원형태에서 특히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부부간의 대화개선, 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대화개선 등에 관하여 교육적 지

<표 6>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요구도

(단위 : %)

변 인	면접상담	전화상담	교육	기타	지원을 원하지않음
스트레스와정신건강문제	25.2	19.4	46.0	1.4	7.9
부부의 습관문제	25.9	14.4	20.9	.7	38.1
부부간의 갈등문제	30.2	20.1	29.5	2.9	17.3
부부간의 대화개선	20.9	14.4	44.6	1.4	18.7
가정폭력문제	23.0	26.6	14.4	1.4	34.5
부부간의 성문제	23.0	32.4	12.9	1.4	30.2
별거, 이혼문제	25.9	26.6	10.8	.7	36.0
자녀문제	25.9	12.9	36.0	2.2	23.0
자녀와의 대화개선	15.1	11.5	43.2	.7	21.6
부모, 친척과의 갈등문제	20.1	34.5	18.0	.7	26.6
가족원의 자살, 가출예방	18.0	26.6	19.4	2.2	33.8

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또한 부부간의 갈등문제에 관하여 면접상담을 많이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직자 가정 아내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에 있어 스트레스관리와 정신건강문제 예방, 부부간의 대화개선, 부부간의 갈등해결을 프로그램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면접상담접근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들이 자녀지도문제와 자녀와의 대화개선에 대하여도 교육참여를 많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내용이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지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직자 아내들을 전화상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히 가정폭력, 성문제, 부모나 친척과의 갈등문제, 별거나 이혼문제, 자살이나 가출예방문제 등에 관한 도움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여러 문제 중 부부의 습관문제, 별거·이혼문제, 가정폭력문제, 자살과 가출, 부부간의 성문제 등에 대하여 30%이상의 아내들이 외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배경변인별 지원요구도 차이분석

지원요구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데로 가정폭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내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정폭력문제, 성문제, 별거·이혼문제, 자살·가출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교육적 지원을 더 많이 희망하였다. 반면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내들의 경우 지원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다른 배경변인(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종교, 아내의 직업, 남편의 실직전 직업, 실직기간, 퇴직금, 자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지원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심리문제별 지원요구도에 따른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와 아내의 우울감 차이분석

심리문제별 지원요구도에 따른 가족의 부정적 변화와 아내의 우울감의 차이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원요구도 중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문제와 부부의 습관문제 등의 2가지 문제에 대한 지원요구도를 제외하고 <표 8>에서 보는데로 9가지 문제에 대한 지원요구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문제와 부부대화에 관하여 지원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공통적으로 남편,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적게 지각하며 우울감도 낮았다. 반면 면접상담을 희망하는 집단은 이들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우울감도 높았다.

가정폭력문제와 부부간의 성문제, 별거·이혼문제 등에 관하여 지원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공통적으로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적게 지각하였다. 반면 이 문제들에 관해 면접상담을 원하거나 교육요구도가 높은 집단은 이들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자녀문제에 관하여 지원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남편, 자녀, 친척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적게 지각하나 반면 이 문제로 교육참여나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집단은 이들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자녀와의 대화개선에 관하여 지원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자녀의 부정적 변화를 적게 지각하는 반면 면접상담을 원하는 집단은 자녀의 부정적 변화를 많이 지각하였다.

친척관계 문제와 자살·가출문제에 관하여 지원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공통적으로 남편, 부부관계, 가족전체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적게 지각하며 우울감도 낮았다. 반면 이 문제로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집단은 이들의 부정적 변화를 많이 지각하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척관계 문제에 관한 지원요구에 따라 자녀, 친척관계 등의 스트레스와 갈등문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결과들을 정리하면 가정폭력 여부에 따라 몇가지 문제 지원요구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경변인별로 지원요구도가 유의한 차이

〈표 7〉 가정폭력 여부별 문제에 관한 지원요구도 차이분석

빈도 (%)

변 인		가정폭력문제 지원요구				계
		면접상담	전화상담	교 육	지원원치않음	
가정 폭력	없음	20 (62.5)	22 (59.5)	10 (50.0)	43 (93.5)	95 (70.4)
	있음	12 (37.5)	15 (37.5)	10 (50.0)	3 (6.5)	40 (29.6)
전체		32 (100)	37 (100)	20 (100)	46 (100)	135 (100)

$\chi^2 = 18.824 \quad df = 3 \quad p < .001$

변 인		부부간의 성문제 지원요구				계
		면접상담	전화상담	교 육	지원원치않음	
가정 폭력	없음	19 (59.4)	30 (66.7)	9 (52.9)	37 (90.2)	95 (70.4)
	있음	13 (40.6)	15 (33.3)	8 (47.1)	4 (9.8)	40 (29.6)
전체		32 (100)	45 (100)	17 (100)	41 (100)	135 (100)

$\chi^2 = 12.395 \quad df = 3 \quad p < .01$

변 인		별거 · 이혼문제 지원요구				계
		면접상담	전화상담	교 육	지원원치않음	
가정 폭력	없음	21 (58.3)	25 (67.6)	8 (53.3)	42 (87.5)	96 (70.6)
	있음	15 (41.7)	12 (32.4)	7 (46.7)	6 (12.5)	40 (29.4)
전체		36 (100)	37 (100)	15 (100)	48 (100)	136 (100)

$\chi^2 = 11.530 \quad df = 3 \quad p < .01$

변 인		자살 · 가출예방 지원요구				계
		면접상담	전화상담	교 육	지원원치않음	
가정 폭력	없음	19 (76.0)	28 (75.7)	12 (46.2)	36 (78.3)	95 (70.9)
	있음	6 (24.0)	9 (24.3)	14 (53.8)	10 (21.7)	39 (29.1)
전체		26 (100)	37 (100)	26 (100)	46 (100)	134 (100)

$\chi^2 = 9.648 \quad df = 3 \quad p < .05$

a : 지원요구중 기타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결과 사례수가 일정하지 않음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부부습관문제들에 관한 지원요구는 공통적으로 배경변인이나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 아내의 우울감과 관계없이 일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원하지 않는 아내들은 남편의 실직 후 남편이나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 친척관계 등에서 부정적 변화를 적게 지각하여 문제의식이 적고 우울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에 관하여 면접상담이나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아내들은 대부분 가족의 부정

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거나 지각하여 문제의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검증 결과는 선행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전후맥락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실직 이후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아내 또는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 아내들이 교육이나 면접상담 등의 요구도가 더 높다는 이와 같은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그들을

〈표 8〉 문제별 지원요구도에 따른 가족의 부정적 변화와 아내의 심리적 적응 차이분석

변인	지원요하는 문제									
	부부갈등	부부대화	가정폭력	성문제	별거이혼	자녀문제	자녀대화	친척갈등	자살가혹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남편 변화	면접상담	↑ 30.33	↑ 30.69	30.38	28.87	29.22	27.69	28.53	28.54	28.25
	전화상담	28.54	29.42	28.34	28.95	28.34	29.29	28.43	28.79	28.53
	교육	28.53	28.38	28.80	30.61	31.13	↑ 30.29	29.77	↑ 32.13	↑ 31.30
	원치않음	↓ 25.00	↓ 25.67	27.24	26.98	27.45	↓ 26.07	26.07	↓ 25.82	↓ 26.98
F-value	3.906**	3.310*	1.727	1.713	1.619	3.470*	2.395	5.672***	2.982*	
부부 변화	면접상담	↑ 9.67	↑ 10.66	↑ 9.94	9.06	↑ 9.87	8.86	9.44	8.32	9.00
	전화상담	8.43	8.45	7.81	8.58	7.92	8.67	8.44	8.23	7.97
	교육	8.80	8.35	9.85	↑ 10.28	9.85	9.08	8.85	↑ 11.12	↑ 10.26
	원치않음	↓ 6.78	↓ 7.20	↓ 7.77	↓ 7.63	↓ 7.84	7.58	7.31	↓ 7.61	↓ 7.87
F-value	3.875*	5.625***	4.499**	2.886*	3.928**	1.340	2.233	6.619***	3.571*	
자녀 변화	면접상담	↑ 6.39	↑ 6.63	↑ 6.87	6.35	↑ 6.81	6.03	↑ 6.29	5.42	5.83
	전화상담	6.15	6.47	5.74	6.17	5.67	6.13	5.86	5.91	5.78
	교육	6.38	5.97	6.30	↑ 6.56	6.53	↑ 6.33	6.21	↑ 7.48	6.81
	원치않음	↓ 4.18	↓ 4.54	↓ 5.02	↓ 4.89	↓ 5.04	↓ 4.70	↓ 4.62	↓ 5.03	5.26
F-value	4.618**	3.663*	3.587*	3.049*	3.914**	2.659*	2.891*	5.034**	2.067	
가족 변화	면접상담	↑ 11.93	↑ 12.56	12.17	11.32	12.17	10.89	11.68	10.59	11.13
	전화상담	10.88	11.58	10.17	10.88	10.15	11.25	10.64	10.40	10.22
	교육	10.77	10.54	↑ 12.30	↑ 12.83	↑ 12.87	11.32	11.10	↑ 13.87	↑ 12.69
	원치않음	↓ 8.36	↓ 8.67	↓ 9.50	↓ 9.28	↓ 9.39	9.29	8.92	↓ 9.21	↓ 9.67
F-value	3.511*	4.127**	3.719*	3.386*	4.788**	1.500	2.322	6.472***	3.132*	
친척 변화	면접상담	↑ 9.90	9.96	9.72	9.48	9.71	8.61	8.52	8.80	9.00
	전화상담	9.62	9.94	9.51	9.49	9.53	↑ 10.29	9.79	9.13	9.26
	교육	8.84	8.98	9.56	10.00	9.43	9.82	9.79	↑ 11.42	10.46
	원치않음	↓ 7.23	7.84	8.11	8.07	8.21	↓ 7.90	7.93	↓ 7.63	8.09
F-value	3.264*	1.977	1.799	1.797	1.554	2.851*	2.295	6.222***	2.584	
우울 감	면접상담	↑ 36.29	↑ 38.17	35.88	35.47	35.69	8.61	34.13	32.86	34.40
	전화상담	33.36	33.95	32.41	33.47	32.30	10.29	32.82	32.21	31.08
	교육	32.07	31.63	33.75	34.72	35.73	9.82	34.07	↑ 39.52	↑ 37.56
	원치않음	↓ 28.67	↓ 30.35	31.10	30.26	30.92	7.90	30.03	↓ 29.95	↓ 30.94
F-value	4.149**	4.932**	1.982	2.450	2.618	2.319	1.572	6.738***	4.237**	

a : 부정적 변화 * P < .05 ** P < .01 *** P < .001

위한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직자 아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대상에 따라 면접상담이나 또는 상담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직자 아내들 중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실직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어려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를 조사하여 실직자 아내의 위기대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8월 18일 - 10월 28일

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실직자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방법과 주변 탐색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계에 이용된 조사대상은 139명이었다.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37.6세이고 남편의 평균 실직기간은 8.1개월이었으며, 81.3%가 전업주부이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들은 가족의 부정적 변화 중 특히 남편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다음 친척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많이 지각하는 반면 자녀의 부정적 변화는 가장 적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배경변인별 가족의 부정적 변화 지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경제 외적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문제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실직하기 전에 비해 실직 후 가정폭력이 10.8% 증가하였고 폭력빈도와 정도도 증가하였다.

둘째, 남편의 대처행동은 직업훈련, 구직, 취미생활 등이 많았고 놀고지냄, 술담배 사용증가 등의 부정적인 대처도 20 - 30% 되며, 이에 대한 아내의 평가는 불만이 40% 이었다. 아내의 문제대처 방법은 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적극적 대처방식을 소극적 방식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남편의 대처방법에서 교육수준별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아내의 대처방법에서 모두 관련변인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아내들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나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높게 지각하는 아내일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았다.

넷째, 대부분의 아내들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부부간의 갈등문제, 부부간의 대화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부부간의 대화개선, 자녀지도와 대화개선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거나 남편, 부부관계, 가족전체 등에서 부정적 변화를 많이 겪는 경우, 그리고 우울감이 높은 아내들이 그렇지 않은 아내들보다 면접상담, 교육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 반면 가정폭력이 없거나 가족원들의 부

정적 변화가 적고 아내의 우울감이 낮은 경우에는 외부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실직자 가정의 아내가 지각하는 가족의 변화와 문제 그리고 대처와 우울감, 지원요구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연령이나 학력, 실직 전 남편의 직업 등에 상관없어서 위기상황에 있는 실직 가정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부부간의 대화개선, 자녀지도와 대화개선, 부부간 갈등문제 등에 관한 아내의 지원요구도, 특히 교육요구도가 높다는 것과, 실직자 가정의 아내의 우울감에 영향력있는 변인들을 파악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로써 실직자 가정의 아내들의 위기대처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당위성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수내용(예를 들면 자존감 향상, 변화상황에 대한 인지변화, 건강 증진, 스트레스 관리, 대화방법, 갈등해결방법, 내적·외적 자원을 활용한 대처방법)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원의 부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아내들이 교육이나 면접상담 요구도가 더 높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교육대상자 모집과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사례수를 늘리고 질적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실직자 가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실직자 가정 아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됨으로써 실직자 가정 아내들의 어려움 극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중돈(1995). 한국가족문제의 유형화와 개입방법. 한국사회복지논총 4 : 129-146.
- 김승권(1998).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요구와 '99실업대책.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주최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요구와 '99실업대책세미나 자료집.
- 김유순·이영분(1998). 실직자 가족을 위한 위기개입

- 모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주최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자료집
- 안병철(1998). 실업과 가족. 한국가족문화학회 · 한국가족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 경제위기와 가족전략의 모색 자료집.
- 이동원 · 함인희(1993).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62 : 5-27.
- 정경배(1998). 실직자 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주최실직자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세미나자료집.
- 정현숙 외(1998). 실직자 가정의 실태와 지원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주최 실직자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세미나자료집.
- 조성희(1998). 실업이 실직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복지 실천방향.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주최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의 대응 세미나 자료집.
- 채규만(1998). 가족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가족복지학회 주최 IMF시대의 가족문제와 대책세미나 자료집.
- 최규련(1998). 실직자 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주최 실직자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세미나자료집.
- 최혜경(1998). 실직자가정의 가족생활, 대인가정학회 주최 실직자가정을 위한 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1998).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국민일보, 1998년 8월 29일자.
- 국민일보, 1998년 9월 26일자.
- 생명의 전화(1998). 상담통계.
- 중앙일보, 1998년 4월 27일자.
- 중앙일보, 1998년 9월 14일자.
- 한국일보, 1998년 4월 1일자.
- 한국일보, 1998년 4월 23일자.
- 한국일보, 1999년 7월 5일자
- Elder, G.H. Jr., Conger, R. D., Foster, E. M., & Ardel,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Folkman, S.K.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 Liker, J.K. & Elder, G.H. Jr.(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McCubbin, H.L., Larsen, A.S. & Olson, D. H.(1982). F-COPES :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 H. Olson, H.I. McCubbin, H.L. Barnes, A.S. Larsen, M.J. Muxen, & M. A.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 Univ. of Minnesota.
- Moen, P., Kain, E. L., & Elder, G. H. Jr. (1983). Economic conditions and family life : Contempo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In Nelson, R. & Kidmore, F.(Eds). *American families and the economy*.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Ulbrich, P. 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21 -131.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 -1115.